

불자 세상보기



방영준
성신여대 윤리교육과
명예교수

아시아베리, 고지 등 과일 주스가 암과 당뇨병 등에 특효가 있는 만병통치약으로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단단계 판매를 통해 원가보다 열배나 뺏기기를 하여 무려 739억 원어치를 팔았다고 한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필자는 언뜻 진시황을 떠올렸다. 웬 뜬금없이 춘추전국시대를 종식시키고 오늘의 대중국을 형성케 한 기초를 만든 진시황을 떠오르는가? 천하의 진시황도 만병통치약에 현혹돼 사기를 당한 제일 고전적인 사례가 아닐까 해서이다. 불로장생이라는 진시황의 허황된 꿈을 이용하여 얼마나 많은 사기꾼이 달려 들었을까이 중에는 자신이 사기꾼이라는 자각이 없는 확신범도 있었지만, 불로장생약을 구한다고 오백 명의 동남동녀를 데리고 봉래산으로 떠난 서복은 결코 돌아오지 않았다.

만병통치약과 진시황 그리고 탐욕

결국 진시황은 납종독으로 사망했다고 전해진다. 진시황의 어리석음은 바로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 아닐까. 인간의 특징 중 하나는 인간이 지닌 유한성을 무한성으로 연결시키려는 욕망을 지닌 존재가 아닌가 생각된다. 정신이나 영혼의 무한성을 추구하면서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무엇인가를 찾게 되고, 육체적인 무한성은 불로장생의 여러 방법을 찾게 된다. 유한성을 무한성으로 확장시키려는 인간의 열망은 결코 비난 받을 특성이 아니다. 문제는 이러한 욕망을 돈을 통해 성취할 수 있다는 생각을 부추기고 이를 이용해 돈을 버는 사기에 있다. 이것은 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대표적인 예로 중세시대의 가톨릭이 면죄부를 돈으로 판 것도 똑같은 경우이다. 중세의 가톨릭을 탓하기에는 우리의 현실도 매우 아프기 만 하지만,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미다스의 황금손은 돈 그 자체가 목적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고전적

인 은유이다. 미다스는 디오니소스 신을 도운 대가로 신에게 무슨 소원이든 들어주겠다는 말을 듣고, 자기가 손을 대는 것은 무엇이든 금이 되게 해달라고 청했다. 그러나 음식이 금으로 변하고 포도주 한 방울이 금으로 변하고 심지어 사랑스런 딸도 금상으로 변하고 보니 이 어찌 환장할 일이 아니겠는가. 미다스는 자기의 탐욕을 후회하고 디오니소스 신에게 이 저주를 풀어달라고 청원했고 다행스럽게도 자비를 베풀어 그의 청을 들어주었다. 이 신화는 고대 그리스에서보다 오늘날 더 큰 의미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훨씬 더 돈 중심이 되었기 때문이다. 오늘의 많은 사람들은 미다스의 고통을 잊어버리고 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허우적거리고 있다. 오늘날 돈은 제일 큰 잡단 환상이 되었다. 많은 영적 선지자들은 이 집단 현상으로 인해 현대인들이 환상을 실제처럼 느끼는 정신병의 질환에서 허덕이고

있다고 한탄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유용성과 효용성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많은 문제는 돈의 결핍의 문제보다는 자아의 결핍과 관련된 것이다. 자아의 텅 빈 구멍을 메울 수 있는 것은 근원적으로 돈이 아니라 붓다의 가르침이다. 즉 영기의 법칙과 무아의 가르침이다. 붓다의 가르침으로 보면 '돈은 흐르는 과정'이다. 돈의 흐르는 과정을 올바르게 하여 붓다의 자비를 실천할 수 있다. 그건 그렇고, '주스 만병통치약' 사건의 피해자는 대부분 노인들이라고 한다. 필자도 만병통치약 선전에 홀들린 적이 꽤 있었다. 주변의 만류가 없다면 몇 번이나 넘어 갈 뻔 했다. 그 만큼 마음관리 하기가 쉽지 않다. 노년인가 급증하는 시대에 비례하여 그만큼 노인의 지혜도 커져야 할 텐데, '지금 영기의 감시한 발상'에 우리의 건강이 있을 것이다.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社說

템플스테이 주간 '문화융성'에 적합

서울 도심 사찰에서 불교문화를 체험하며 돌아오는 2015년을 준비하는 템플스테이가 마련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서울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 간 '2014 서울 템플스테이 WEEK'를 개최한다. 서울 시내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9곳에서 진행되는 이번 주간 행사는 서울시민과 서울을 방문한 내·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다양한 전통문화와 사찰음식, 도심 속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체험 행사가 마련된다고 한다. 초겨울의 문턱에서 열린 '템플스테이 WEEK'는 당일행과 1박2일 형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에도 '전통사찰 WEEK'를 열고 시내 53개 전통사찰에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이 같은 주간 행사는 불교문화콘텐츠를 활용하는 데 있어 모범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불교문화재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것은 문화재적 가치를 높게 평가돼서만이 아니다. 승가 공동체의 삶이 사찰 안에서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이다. 한국 불교의 전통이 생활과 삶 속에서 반영되고 있는 것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불교문화재는 보존과 동시에 활용에도 힘을 써야 한다. 서울시가 불교계와 손을 잡고 전통사찰을 탐방하는 '전통사찰 WEEK'와 도심 사찰 속 템플스테이를 체험하는 '템플스테이 WEEK'를 진행하는 것은 문화재 활용에 모범이라고 볼 수 있다. 문화재 활용사업은 현 정부의 문화정책기조인 '문화융성'에도 가장 부합하는 사업 아이템이다. 그래서 문화재청도 '관광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역 전통문화 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계도 이 같은 활용사업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이제는 구슬을 꿰어야 할 시점이다.

약탈문화재 환수, 남북 협력 계기 되길

일본 도쿄국립박물관이 보관중인 '오구라 컬렉션' 반환을 위해 남북한 불교도들이 뜻을 모으기로 했다. 해외 반출 문화재의 반환을 위해 활동해온 한국의 문화재제자리찾기와 북한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는 11월 3일 '우리 민족의 문화재 반환을 촉구하는 남북 불교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남북은 "도쿄국립박물관이 보관하고 있는 '조선 대원수 투구' 등 약탈 문화재들을 모두 다 우리 민족에게 반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남북 불교계는 우리 민족끼리의 가치 아래 단합된 힘으로 일제가 약탈해 간 모든 문화재들을 찾기 위한 공동활동을 즐기며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남북이 간만에 의견을 모은 것은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인 혜문 스님의 공이 컸다. 스님은 지난날 중국 베이징 등에서 이번 공동성명 문안 조정을 위해 북쪽 불교계 관계자들과 만나 활발히 논의했다.

오구라 컬렉션은 일제 강점기 때 설립자인 오구라 다케노스케(1896~1964)가 한반도 등에서 수집해 간 유물 1400여점을 일컫는다. 이 가운데 39점이 일본 국가문화재로 지정될 정도로 수준 높은 문화재들이 포함돼 있다. 혜문 스님은 컬렉션 가운데 여러 정황상 도난품임이 분명한 조선 대원수 투구와 오구라가 1964년 작성한 목록에서 '민비(명성황후)가 죽은 곳(경복궁 건청궁)에서 가져왔다'고 기술한 주철 12각상 등 34점은 도쿄국립박물관이 소장해선 안 된다는 조정 신청을 지난 8월 말 접수한 상태다. 비록 일본 법원이 11월 5일 문화재 제자리 찾기가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남북이 동맹 한목소리로 문화재반환을 위해 타국과 싸우고 있는 점은 흐뭇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민족간의 뜨거운 결합, 즉 하나되기가 다른 분야에서도 계속되길 기대한다.

발언대
생명나눔실천본부 20년

현재 한국의 장기이식대기자는 2만6천여명. 지난해 실제로 장기이식이 이뤄진 경우는 3천7백명에 지나지 않는다. 장기이식 희망자의 이식 대기시간도 갈수록 길어져 평균 3년9개월이 걸린다. 이처럼 장기기증은 아직 사람들에게 낯설기만 한 것이 사실. 장기기증의 나눔정신은 불교의 보시사상과 떼어서 설명하기 힘들다. 평소 장기기증 운동에 열심인 이들에게 그 필요성에 대해 들어봤다.

"장기기증 서약하는 당신이 관세음보살"



정연님
심론중추위원

사람은 누구나 죽지만 이왕 죽는다면 한 명이라도 소중한 목숨을 살리고 가는 것이 의미있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보시 중의 가장 큰 보시이지 않을까. 부처님은 생명중중사상을 설파하셨고 무소유 역시 강조하셨다. 당연히 장기기증은 부처님의 뜻에 부합하는 거룩한 행위이다. 그러나 스님들 중에도 장기기증에 대해 거부감을 표시하는 분들을 많이 봤다. 수행자가 돼서 몸에 대한 집착을 여의지 못하고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꺾지 못하는 이들을 보면 실망이 앞선다. 부처님 역시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계셨더라면 흔쾌히 장기기증에 동참하셨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 역시 2012년 한쪽 눈의 시신경이 파괴돼 실명돼 버렸다. 지금은 나머지 한쪽 눈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

다. 아파보니 환자들의 심정이 이해가 간다. 그래서 주저 않고 생명나눔실천본부에 장기기증 서약서를 보냈다. 추후에 내 몸이 조금이라도 아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그리고 지금까지 신도들에게 항상 장기기증을 권한다. 불자라면 응당 해야 하는 보시라고 설득하며 부처님이라면 당연히 마음을 내셨을 거라고 하면 많은 이들이 동감을 표한다. 지금까지 동참한 이들이 3백명이 넘는 것이다. 장기기증에 대한 마음을 내고 이를 결심하는 이들이야말로 살아있는 관세음보살이다. 다른 수칙에는 필요하지 않다. 부처님은 재물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무재철시를 설하셨다. 가진 것이 없어도 내몸으로 할 수 있는 보시에 대한 설명이다. 소유가 아닌 존재 자체가 바로 보시의 원천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불자들이 더 진정한 나눔에 대해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스님들부터 모범을 보일 때 사회에 생명나눔문화가 활성화될 것이다.

"살려는 의지 있는 이들에게 도움되고 싶어"



김순임
생명나눔실천본부 봉사자

2005년, 전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임직하시면서 생전 유지에 따라 법구를 기증했다는 소식이 모두에게 감화를 줬다. 나 역시 마 찬가지였다. 큰스님께서 보여주신 무수상보시행에 큰 감동을 받았다. 당시 불자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스님을 따라 장기기증 서약에 많이 동참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막상 장기기증에 동참할 생각을 하니 용기가 나지 않았다. 3년이 흘렀고, 어느 날 친구가 장기기증서약을 했다는 말을 들었다. 속으로 뜨끔했다. 법장 스님 생각이 다시 나면서 마음을 크게 먹었다. 그렇게 2007년 생명나눔실천본부에서 장기기증 서약을 했다. 그 후로 본부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캠페인에 나가 사람들에게 장기기증 홍보를 한다. 항상 옷에 장기기증 배지를 달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먼저 관심을 보여준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장기기증

에 대해 이야기한다. 10명 중 8명은 거부감을 표시한다. 나이트 사람일수록 심하다. 마찬가지로 사찰에 가서 캠페인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면 몇몇 곳에서는 난색을 표한다. 불자들이 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보시의 공덕에 대해 수차례 들었음에도 장기기증 권유를 극구 뿌리치는 이들을 보면 회의가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이 병원에 와서 보면 알게 될 것이다. 몇 년째 병원봉사를 하는데 정말 장기기증이 절실한 사람이 많다. 피부를 재생해야 하는 이들, 눈이 안 보이는 이들, 신장기능이 약화돼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이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이들에게 떠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 저절로 든다. 내 추천으로 장기기증 서약에 동참한 친구는 좋은 눈을 기증하고 가요한다며 꾸준한 눈운동을 한다. 이렇게 살아생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삶을 마감하며 자신을 내려놓고 가는 것도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생각한다.

Advertisement for Park Tae-won's natural A-bichui (玉) jewelry. Features images of various jewelry pieces and text describing their benefits and availability.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shop.

Advertisement for Durian Shop. Promotes durian products with a 'Sale!' banner. Includes pricing for different quantiti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online shop.

Advertisement for MSM Glucosid Omega3 Cream. Promotes the cream for joint pain relief. Includes product imag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distributor.